

조선초기 대외정보의 수집활동과 보고경로

李圭哲*

1. 머 리 말
2. 대외정보 수집활동의 유형
3. 대외정보의 보고경로
4. 맺 음 말

1. 머 리 말

정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 또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는 자료(data), 뉴스(news), 출처(source), 첩보(information), 정보(intelligence)와 같은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²⁾ 더욱이 정보의 수집과 보고·분석 과정의 흐

름을 추적하는 일이 쉽지 않은 전근대 시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전근대 시기의 정보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보를 '국가가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에 필요로 하는 기본자료'로, 대외정보를 '상대국의 의도와 행동을 파악하고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정의하고자 한다.

국가로 존립하기 위해서 안전보장이 최대 과제라 할 때 대외정보 수집활동은 국정운영이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특히 조선 초기는 주변국들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외정보 수집은 국가운영과 대외정책의 수립에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정보수집 활동이 어떠한 방식과 과정을 거쳐 최고의 정책결정자인 왕에게 보고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조선 초기 국제관계의 실상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던 대외적 관심, 운영 능력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조선 초기의 정보수집이나 정보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없어 이 방면의 관심이 대단히 낮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언급한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 초기의 정보수집은 주로 體探이라는 정찰활동에 의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세종대에 이르러서 체탐의 횟수와 체탐군의 수를 늘려가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정보수집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임을 논증한 연구,³⁾ 조선이 건국 초기에 간첩 활동을 통해 명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음과 '靖難의 役' 기간에 내전의 추이를 항상 주시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음을 밝힌 연구,⁴⁾ 세종 16년에 단행되었던 野人 정벌시 정보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군사작전의 시각에 입각해서

* 가톨릭대학교 강사

1) 김운덕, 『국가정보학』, 博英社, 2001, 15~18쪽 참조.

2) '첩보(諜報, Information)'는 수집된 자료들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정보(情報, Intelligence)'는 첩보의 분석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들은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첩보'와 '정보'란 용어는 혼재되어 사용되거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博英社, 2002, 24~27쪽 참조).

3) 吳宗祿, 『朝鮮初期 兩界의 軍事制度와 國防體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4) 朴元鎬,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002.

정리한 연구 등이 있다.⁵⁾ 다음으로는 使臣과 通事(譯官)의 정보수집 활동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건국 초기에 발생했던 외교문제의 원인이 使臣의 정탐 활동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遣明 사절의 정보탐지 활동에 대해 설명한 연구,⁶⁾ 통사가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했음을 살핀 연구,⁷⁾ 李藝의 對日 정탐 활동에 대해 설명한 연구⁸⁾ 등이 있다. 또한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조선 초기의 체담 활동에 대해 밝힌 연구도 있다.⁹⁾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정보의 수집 방법이나 보고 경로 등에 대한 설명이 너무 단순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먼저 제1장에서 조선 초기의 대외정보수집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장에서는 수집된 대외정보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정책결정자에게까지 보고되는지를 살펴보겠다.

2. 대외정보 수집활동의 유형

(1) 외교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1) 使 臣

사신은 전근대 국가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를 담

5) 柳在城, 『國土開拓史』, 國防軍史研究所, 1999.

6) 朴成柱, 「조선초기 遣明 使節에 대한 일고찰」, 『慶州史學』 5, 2000.

7) 白玉敬, 「朝鮮前期 譯官의 性格에 對한 一考察」, 『梨大史苑』 22·23 合集, 1998; 김정록, 「조선초기 통사의 활동과 위상 변화」, 『韓國學報』 101, 2000.

8) 韓文鍾, 「朝鮮初期 李藝의 對日交渉 活動에 대하여」, 『全北史學』 11·12 合集, 1989; 池斗煥, 「世宗代 對日政策과 李藝의 對日活動」, 『韓國文化研究』 11, 1992.

9) 鄭夏明, 「朝鮮初期의 體探」, 『陸士論文集』 32, 1987.

당하는 존재였다. 이들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국의 정세를 살필 수 있었다.¹⁰⁾ 조선 초기에 사신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명이었다. 명에서 사신들이 획득했던 정보는 주로 황제의 동향, 군사 활동, 대규모 작업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특히 이 시기 명이 주변 지역과 자주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던 만큼 사신들은 주로 명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奏聞使 오진이 비밀히(明) 조정의 소식을 보고하기를, “韃靼皇帝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關中口子 밖에 주둔하고 있는데, 總兵官 沂國公 武城侯가 이를 막다가 패하여, 전 군사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諸路의 군사를 징집하여 명년 2월에 北征하려고 합니다.”고 했다.¹¹⁾

기사에서 주문사 오진은 명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북정의 시기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사 행동에서 출동 시기는 최고의 보안을 요구하는 극비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해 보고했다는 점은 당시 사신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사신의 정보수집은 임무의 특성상 모든 활동이 공개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많은 감시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태종이 영락제가 조선에 대한 의심이 많아 사신 등을 內豎(환관)를 통해 감시하고 있음을 언급한 사례나¹²⁾ 세종이 명의 辦事官이 미복 차림으로 조선사신의 동정을 살핀 일에 대해 언급하며, 내통자와 만날 때 행동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사례¹³⁾ 등은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한편 사신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에 힘썼던 것과는 반대로 상대국

10) 여말선초 시기 대명사신의 정보탐지 활동에 대해서는 朴成柱, 앞의 논문, 162~164쪽 참조.

11) 『太宗實錄』 권18, 太宗 9년 10월 庚戌.

12) 『太宗實錄』 권24, 太宗 12년 10월 戊寅.

13) 『世宗實錄』 권86, 世宗 21년 9월 乙卯.

에서는 조선에서 파견된 사신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므로 사신에게는 정보수집 활동뿐만이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한 임무였다. 이런 까닭으로 조선에서는 사신들에게 보안을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인 조치로 우선 사신들의 사적 교제를 엄격히 제한했고, 사신을 통해서 사적 교제를 갖는 일도 금지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명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예조에 신고하고, 예조에서 다시 이를 계달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京師로 가는 통사에게 연락물을 주어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은밀히 연락을 취하는 자들은 모두 ‘漏泄軍情大事律’, 즉 軍情大事를 누설한 자에 대한 『大明律』의 규정에 의거하여 죄를 결단하도록 했다.¹⁴⁾

2) 通 事

통사는 사신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상대국의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보수집 수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들을 이용해서 대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¹⁵⁾ 통사의 언어 능력과 넓은 활동 영역은 사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조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통사를 파견하는 사례가 사신을 파견하는 경우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도 정보수집 활동에서 이들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좌의정 하연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통사를 요동에 급히 파견하여 사변을 정찰하게 하고, 또 대장을 양계에 별도로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부대 등을) 배치하게 하고 邊將들을 경계시켜 엄중히 경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야인이 친근하게 여기고 신용하는 자로 하여금 깊이 들어가서 소식을 정탐하게 하고, 무재가 있는 자가 밖에 있으면 불러 오고, 상중에 있는 자

14) 『世宗實錄』 권63, 世宗 16년 3월 戊戌.

15) 通事の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서는 白玉敬, 앞의 논문, 435~438쪽; 김경록, 앞의 논문, 66쪽 참조.

를 起復하게 하며, 파직된 자를 찾아 쓰고, 금년의 行城 쌓는 일을 정지시켜 사졸들을 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고, 곧 통사 김자안과 강문보를 요동에 파견했다.¹⁶⁾

이 기사는 요동 지역의 也先과 명에 관련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통사를 파견하는 내용이다.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통사를 파견하는 시점이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생각한다면,¹⁷⁾ 조정에서 이들에게 요구한 정보수집 활동은 상당히 중요한 임무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요동 지역에 파견된 통사 김자안과 강문보는 조정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세한 내용의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¹⁸⁾

이외에도 사행 중에 상대국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신이 통사에게 정탐 활동을 지시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¹⁹⁾ 이들의 활동범위가 사신보다 넓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통사는 외교활동 뿐만이 아니라 군사·비밀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사가 정탐 활동 중에 적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²⁰⁾ 급기야는 통사를 간첩으로 파견하자는 논의도 나타난다.²¹⁾ 또한 통사는 정보의 수집뿐만이 아니라 사행에서 획득한 정보를 조정에 신속히 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했다.²²⁾ 사신들은 중요 정보를 중앙정부에 신속히 보고하기 위해 통사를 먼저 귀국시켜서 보고하도록 했다.²³⁾

16) 『世宗實錄』 권125, 世宗 31년 8월 己酉.

17) 조선에서는 명을 침략한 也先의 병력이 이미 요동 지역까지 이르렀다는 정보를 보고 받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의 움직임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다(『世宗實錄』 권125, 世宗 31년 8월 戊申).

18) 『世宗實錄』 권125, 世宗 31년 8월 己未; 『世宗實錄』 권125, 世宗 31년 8월 乙丑.

19) 『世宗實錄』 권26, 世宗 6년 12월 戊午.

20) 『太宗實錄』 권15, 太宗 8년 2월 己亥.

21) 『世宗實錄』 권74, 世宗 18년 7월 辛亥.

22)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김경록, 앞의 논문, 60~61쪽 참조.

23) 『太宗實錄』 권18, 太宗 9년 8월 壬戌; 『世宗實錄』 권120, 世宗 30년 4월 庚辰.

통사는 정보활동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사신 이상의 보안유지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들도 사신과 마찬가지로 사적 교제가 엄격히 제한되었다. 통사로서 국사를 누설하거나 사적 교제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모습들은²⁴⁾ 당시 조선에서 보안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종 16년에 예조에서 '북경에 나아가는 통사로서 위임 받은 사무 이외에 필요 없이 본국의 크고 작은 사정을 말하는 자'에게도 漏泄軍情大事律을 적용시키도록 하자는 건의를 세종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²⁵⁾ 당시 통사에게 더욱 엄격한 보안유지를 요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押送官(押解官)

사람이나 말·소 등을 목적지까지 압령하여 교부하던 일을 담당하던 압송관(압해관)도 임무의 성격상 상대국의 지역을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唐人押送官 설내가 北京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황제가 奏本을 보고도 별다른 聖旨가 없었습니다. 당인 예관음보가 크게 말하기를, ‘왜인이 배 80여 척을 만들어 중국을 침략하고자 합니다.’ 하니, 황제가 이를 듣고 左軍都督과 內史를 시켜 재삼 묻게 하였습니다. … 도독이 말하기를, ‘조선은 반드시 왜와 통호할 것이다.’ 하니, 예관음보 등이 말하기를, ‘저 왜인들은 모두 병기를 숨겨두었다가 만약 배가 없는 곳에 이르면 침탈하고 병기가 있는 곳에서는 興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황제에게 아뢰기를, ‘왜인이 사는 섬은 蓼葉과 같이 작습니다. 만약 唐船과 朝鮮船이 함께 정벌한다면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하니, 황제도 征倭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江浙 등지에 왜선 80척이 정박한 일을 와서 아뢰었습

니다. …”고 했다.²⁶⁾

기사에서 당인압송관 설내는 임무 수행 중에 보고 들은 예관음보와 황제·좌군도독의 대화내용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설내는 이 보고를 통해서 명에서 조선과 왜의 통호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며, 황제가 왜를 정벌할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중요 정보를 조정에 알리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압송관이 임무수행 중에 명의 정세나 움직임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음을 의미한다. 설내 이후에도 다른 압송관들이 정보를 보고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²⁷⁾

(2) 군사·비밀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1) 斥候·體探

척후와 체탐은 적의 움직임을 미리 탐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척후가 비록 체탐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기는 했지만 적의 움직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해, 체탐은 적의 중심 지역까지 침투해서 적정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적국의 군사활동을 미리 탐지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기본이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척후와 체탐은 대외정보 수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활동이었다.

먼저 척후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사례는 상당히 많았을 것이지만 조선 초기의 기록에서 이에 해당하는 기사는 거의 없다. 체탐이나 간첩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는 사례들은 여러 개를 찾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척후의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는 척후가 체탐이나 간첩 활동과는 달리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종 24

24) 『太宗實錄』 권21, 太宗 11년 6월 戊午; 『世宗實錄』 권54, 世宗 13년 10월 壬辰.

25) 『世宗實錄』 권63, 世宗 16년 3월 戊戌.

26) 『太宗實錄』 권33, 太宗 17년 윤5월 甲子.

27) 『世宗實錄』 권18, 世宗 4년 11월 庚申; 『世宗實錄』 권118, 世宗 29년 10월 丁亥.

년 8월에 왕이 경상우도처치사에게 전지한 내용에,

마땅히 매월의 당번인 수륙군으로 하여금 그 병장기를 정비하고 봉화를 신중히 하며, 척후를 멀리 보내어 항상 적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하라.²⁸⁾

고 한 부분은 척후의 목적이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체탐은 적정을 파악하는 등의 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척후와 같은 목적을 가진 활동이었다. 하지만 체탐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적진 근처나 적의 영역 안에 침투해서 군사 활동이나 가시적인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²⁹⁾ 차이가 있다. 체탐은 척후와는 달리 실제 활동 모습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체탐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을 담은 기사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평안도도절제사 이천이 상언하기를, “... 이달 초3일에 理山 체탐인 김장 등 다섯 사람이 婆猪江을 몰래 건너서, 兀刺山 북쪽 모퉁이에 있는 吾彌府에 곧장 이르러 보니, 물 양쪽 언덕에 큰 들이 모두 개간되어 농민과 소가 들에 흠어져 있었으며 말은 보이지 않았으며, 인가 18호가 물가 언덕에 있었는데, 산골짜기에 흠어져 있어서 두루 볼 수 없었다 하오나, 이것이 그 대체적인 숫자입니다. 김장 등이 도적의 소굴을 살펴보고 돌아오다가 고개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적 다섯 기가 밀림 속에서 나와 고함을 치면서 쫓아와 활을 쏘기에 잡힐 수 없어서 나무에 의지하여 역습하였습니다. 군인 김유생이 쏜 화살이 적의 왼쪽 뺨을 맞히니, 그 뒤로는 모여 서서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몰래 도망할 즈음에 후미를 돌아보고야 군인 김옥로가 없

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힌 것은 아니고 반드시 떨어져서 홀로 나오다가 짐승에게 먹혔거나 물에 빠진 것입니다. ...”고 했다.³⁰⁾

이 기사는 체탐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체탐인들의 목표 지점, 침투 경로, 획득한 정보의 내용, 교전 상황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덕분에 체탐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체탐이 척후보다 더 넓은 활동영역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척후보다는 체탐을 통한 정보보고의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넓은 활동영역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당연히 그만큼의 위험을 동반한 것이었다. 피할 수 없는 교전이 벌어지거나, 도주 중에 대원이 실종되는 모습은 체탐 활동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2) 間 諜

간첩은 자국민으로서 타국의 정보를 획득하여 보고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활동하면서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정보를 수집했다. 간첩은 정보수집을 위해 적의 생활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활동했던 만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더욱이 간첩의 파견은 상대국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중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깊은 주의가 요망되었다.

조선 초기에 대신들이 간첩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³¹⁾ 이는 간첩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배권력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종서가 세종

28) 『世宗實錄』 권97, 世宗 24년 8월 丁酉.

29)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庚戌;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丁巳.

30)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己巳.

31) 『世宗實錄』 권59, 世宗 15년 2월 壬子; 『世宗實錄』 권73, 世宗 18년 윤6월 癸未.

에게 아뢰는 내용 중에,

옛날부터 적국을 상대하는 자가 반드시 적국의 정상에 대한 허실과 도로의 굽고 바름, 험하고 평탄한 것을 알아서 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간첩을 잘 활용할 뿐입니다.³²⁾

고 한 부분은 당시 조선에서 간첩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3) 內通者・反間

내통자와 반간은 모두 광의의 간첩에 포함되며, 일정한 대가를 목적으로 상대국에 정보나 편의를 제공하는 타국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통자가 단순히 정보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비해 반간은 상대국에 고용되어 적극적으로 간첩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통자들은 조선 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조선에서 파견된 정보관이나 정보원을 자국 내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내통자들의 도움 없이 수행되는 외국에서의 정보수집 활동은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외국에 있는 조선의 내통자들은 대외정보수집 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다.

반간은 때로는 자국에서 파견한 간첩의 활동을 의미하거나³³⁾ 적국의 간첩을 가리켜 사용되기도 했지만,³⁴⁾ 보통은 적국의 사람으로서 간첩으로 고

용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지금 정부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 적이 오는 시기를 고하게 하되, 말한 바가 과연 그러하다면 공에 대한 상을 후하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야인이 다투어 반간이 되고자 할 것이므로 저쪽 사람의 모략을 거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³⁵⁾

기사에서 ‘야인이 다투어 반간이 되고자 할 것’이라고 한 부분을 통해서 반간이 자국민이 아니라 상대국(야인)의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반간에 대한 인식은 세종이 함길도도절제사 이세형에게 전지한 내용 중에서,

적의 실정을 알고자 하면 反間計를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³⁶⁾

고 한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세종대에는 여진 지역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많은 간첩을 파견했다. 당시 조정에서 가장 선호했던 방식은 여진인을 반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현지인을 반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특별히 선호했던 이유는 언어와 생활습관, 보안 등의 문제에서 이들이 훨씬 유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³⁷⁾ 그러므로 세종대에는 여진 지역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명의 반간을 운영했고, 이들의 임무수행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³⁸⁾

해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인물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슬라를 반간으로 표현하고 있다(『太宗實錄』 권33, 太宗 17년 윤5월 癸未).

32) 『世宗實錄』 권73, 世宗 18년 7월 辛亥.

33) 세종은 도승지 성염조와 우부승지 이승손에게 “(박호문을) 이만주에게 반간으로 보낸 것이 두세 차례 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국에서 파견한 간첩을 반간으로 지칭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권90, 世宗 22년 7월 癸丑).

34) 태종 17년에 강원도도관찰사가 馳報하기를, “평해군 후리포에서 반간 활동을 하던 왜인 瑟羅를 잡아 본군에 가두었습니다”고 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슬라는 대마도의 船主가 연

35) 『世宗實錄』 권74, 世宗 18년 7월 辛亥.

36) 『世宗實錄』 권92, 世宗 23년 3월 丙午.

37) 『世宗實錄』 권92, 世宗 23년 3월 丙午.

38) 『世宗實錄』 권81, 世宗 20년 6월 甲戌; 『世宗實錄』 권98, 世宗 24년 11월 丁丑; 『世宗實錄』 권99, 世宗 25년 10월 丙寅.

또한 세종대에는 정보를 제공해준 야인에 대해 파격적인 포상조치들을 시행했다.³⁹⁾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선에서는 여진 지역에서 많은 내통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에게서 얻는 정보의 양은 다른 지역의 내통자들에게 얻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신뢰할 만한자들을 다시 선발하여 반간으로 활용했다.⁴⁰⁾ 이는 당시 조선에서 군사·비밀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 중에서 내통자와 반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기타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1) 중앙관료의 特派

중앙정부에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지역에 관료를 특파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세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보수집 방식은 보통 중요 정보가 조정에 보고된 이후 추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나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가 필요할 때 이용되었다.⁴¹⁾

세종대의 마변자와 변효문 같은 이들은 정보수집과 招撫 활동만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도절제사 등과 함께 논의하여 야인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으며, 개별적으로 야인 대책을 건의하거나, 반간을 파견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까지 수행했다.⁴²⁾ 하지만 이들은 도절제사와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하라는 조정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문제를 야기했다.⁴³⁾ 이들의 사례는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관료를 특

39) 『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1월 壬辰; 『世宗實錄』 권92, 世宗 23년 2월 庚辰.

40) 『世宗實錄』 권92, 世宗 23년 3월 丙午; 『世宗實錄』 권99, 世宗 25년 1월 丙寅.

41) 『太宗實錄』 권20, 太宗 10년 8월 乙未; 『世宗實錄』 권1, 世宗 즉위년 10월 戊戌.

42)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4월 己亥;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4월 戊戌;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6월 丁亥.

43)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4월 辛丑;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5월 甲辰.

파했을 경우 변경지역책임자와 정확한 업무분담과 협력체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수집 체계나 지휘 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捕虜

포로들은 자신이 속해있던 조직의 실제 모습이나 행동 계획, 이동 경로, 부대의 지휘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포로로 잡힌 왜인을 처형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사정을 아는 자 3명은 살려두도록 했다.⁴⁴⁾ 또한 제주도안무사 김인이 항복한 왜인 14명에 대한 처리여부를 묻자 우선 사변을 신문한 뒤에는 모두 죽여도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한다.⁴⁵⁾ 이러한 세종의 지시와 언급은 당시 포로의 심문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세종 18년에 의정부에서 변경을 침입했다가 사로잡힌 忽刺溫의 加湯其와 愁古 등을 추핵하지 않고 형벌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탄핵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진다.⁴⁶⁾ 세종은 이 문제를 불문에 부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 역시 당시 포로를 중요한 정보제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의금부도사 김유공을 강원도로 보내어 왜인 슬라를 잡아 오게 하였다. 처음에 도관찰사가 馳報하기를, “평해군 후리포에서 반간 활동을 하던 왜인 슬라를 잡아 본군에 가두었습니다. 그 왜인이 納辭하기를, ‘대마도에 거주하는 船主 吾羅·三甫羅 등 3인이 왜인 21명을 거느리고 평해 지방에 정박하였다가 저를 두고 가면서 말하기를, 조선의 各浦에서 興利를 엄금하여 생계가 심히 어렵다. 연해를 두루 다니면서 부유하게 사는 人戶의 허실을

44) 『世宗實錄』 권4, 世宗 원년 5월 丁卯.

45) 『世宗實錄』 권61, 世宗 15년 윤8월 丁丑.

46) 『世宗實錄』 권74, 世宗 18년 9월 丁未.

살펴 알고 6월 보름 이후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합니다.” 하니, 이때에 이르러 잡아 오게 하였다.⁴⁷⁾

이 기사는 간첩행위를 하는 왜인 슬라를 사로잡아서 공초를 받는 내용이다. 도관찰사는 이를 통해서 간첩을 보낸 주체와 파견 목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어 조정에 보고하고 있다. 만약 변경의 지휘관이 이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나 납득할만한 공초 내용을 얻지 못했을 경우, 포로들은 서울로 압송되어 의금부의 국문을 받아야 했다.⁴⁸⁾

3) 歸化人(向化人)

귀화인은 포로보다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정보제공원이었다. 귀화인은 포로와는 달리 정치적 문제나 이념, 물질적 대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정보제공원이 되었던 만큼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나 신뢰도는 포로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조선에서는 外人(明을 제외한)의 귀화를 장려했다.⁴⁹⁾ 그러나 귀화인들은 반대급부로 조선측에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만약 귀화인들이 조선측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먼 지역에 유치되는 일도 감수해야 했다.⁵⁰⁾

귀화인들이 정보원으로서 지닌 장점은 연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귀화를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지만⁵¹⁾ 귀화해 온 상태에서도 연고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⁵²⁾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세종대에는 이들을 간첩으로 파견하자

47) 『太宗實錄』 권33, 太宗 17년 윤5월 癸未.

48) 『世宗實錄』 권76, 世宗 19년 2월 壬申.

49) 『世宗實錄』 권99, 世宗 25년 1월 乙丑.

50) 『世宗實錄』 권73, 世宗 18년 윤6월 丙子.

51) 『世宗實錄』 권68, 世宗 17년 6월 癸丑; 『世宗實錄』 권115, 世宗 29년 2월 己酉.

52) 『太宗實錄』 권35, 太宗 18년 3월 庚午.

는 논의도 나타난다.⁵³⁾ 그러나 귀화인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은 두 가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는 연고지역과 교류가 계속되는 귀화인에게서 발생하는 이중간첩 행위였고,⁵⁴⁾ 두 번째는 연고지역과의 교류가 없는 귀화인들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져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였다.⁵⁵⁾

3. 대외정보의 보고경로

(1) 외교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

조선 초기에 외교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대부분 사신과 통사의 활동을 통한 것이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당시 최고의 정보사용자였던 왕에게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보고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대체로 왕에게 直報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귀한 사신은 왕에게 복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⁵⁶⁾ 사신이나 통사가 외교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특정 부서를 거쳐 보고되는 사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신이나 통사 등이 외교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시급한 정보는 도착 전에 미리 보고했다.⁵⁷⁾ 정보를 보고 받은 왕은 내용의 경중을 판단해서 승정원이나 의정부·육조 등에

53) 『世宗實錄』 권73, 世宗 18년 윤6월 癸未.

54) 『太宗實錄』 권30, 太宗 15년 8월 己巳; 『世宗實錄』 권4, 世宗 원년 6월 丙子.

55)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7월 己丑.

56) 복명 사실이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太宗實錄』 권33, 太宗 17년 4월 壬申; 『世宗實錄』 권19, 世宗 5년 2월 戊辰).

57) 『太宗實錄』 권4, 太宗 2년 9월 戊申.

의논하도록 내려주었다.⁵⁸⁾ 왕의 판단을 거쳐 우선적으로 정보의 분석을 담당하는 주체는 승정원이었다.

통사 강유경이 요동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7월 초4일에 왜적이 여순에 들어가 天妃 娘娘殿의 보물을 모조리 거두고, 2만여 인을 살상하고, 1백 50여 인을 노략질했으며 登州의 전함을 모두 불사르고 돌아갔습니다.” 하니, 임금이 최한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왜적이 중국을 침구한 것이 여러 번인데 이번이 가장 심하다. 황제가 만일 노하여 정벌하고자 하면 반드시 정벌을 도우라는 명이 있을 것이니, 장차 어찌 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가 일본과 교통하여 왜사가 계속하여 오니, 황제가 만약 이를 알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허물을 돌릴 것이다. 또한 장차 어찌할 것인가?”하니, 유사 놀이 대답하였다.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⁵⁹⁾

태종은 왜구가 명의 변경을 침략해서 큰 피해를 주었다는 정보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승정원에 묻고 있다. 사료상으로는 승정원에서 이에 대해 단순히 ‘진실로 염려스럽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나와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승정원이 태종에게 이러한 답변만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당연히 승정원에서는 정보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왕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당시 승정원에서 보고한 대책이 별다른 이견 없이 시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보의 분석과 대책 마련에 승정원만의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신들과의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⁶⁰⁾ 하지만 이들이 수집된 정보의 분석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왕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따라서 정보분석 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웠

58) 『太宗實錄』 권33, 太宗 17년 6월 丁亥; 『世宗實錄』 권113, 世宗 28년 9월 甲戌.

59) 『太宗實錄』 권30, 太宗 15년 7월 戊午.

60) 『太宗實錄』 권25, 太宗 13년 3월 己亥.

다. 물론 이들이 외교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분석 작업을 오로지 왕의 지시만을 따라서 수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왕의 특별한 지시 없이 예조에서 사신의 보고 내용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대비책을 제시하거나,⁶¹⁾ 의정부와 예조가 함께 일본에서 보내온 편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일본 국내에 문제가 있음을 예측하기도 했다.⁶²⁾ 다만 두 사례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난 뒤에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외교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보고 과정이 간략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정보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고의 중간 단계가 생략되어 원정보에 가까운 상태가 유지되어 정보의 왜곡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조정에서는 정보 전달자가 신속히 와서 보고하는 경우 포상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고의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노력했다.⁶³⁾ 또한 통사들은 사행 중에 입수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귀국해서 조정에 정보를 전했다.⁶⁴⁾ 조정에서는 보고된 정보가 변경 지역의 방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 정보를 다시 도절제사나 관찰사에게 내려 보냈다.⁶⁵⁾

(2)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외교 활동을 통한 것과 달리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왕에게 보고되었다. 조선 초기의 군사·비밀 정보 활동은 대부분 변경지역 책임자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물론 중앙정부의

61) 『世宗實錄』 권48, 世宗 12년 5월 戊午.

62) 『世宗實錄』 권99, 世宗 25년 2월 辛卯.

63) 『世宗實錄』 권21, 世宗 5년 8월 丁巳 「원접사 권진이 가평역의 일수 정현을 보내어 글로 써 아뢰기를, … 정현에게 옷 두 벌을 내리어 그 빨리 온 것을 포상하였다.」

64) 『太宗實錄』 권18, 太宗 9년 8월 壬戌; 『世宗實錄』 권120, 世宗 30년 4월 庚辰.

65) 『世宗實錄』 권116, 世宗 29년 윤4월 戊子; 『世宗實錄』 권116, 世宗 29년 6월 戊子.

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보 활동도 있었지만 이러한 활동을 직접 책임지고 감독하는 주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지역의 책임자였다. 따라서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보고 경로의 중심에는 변경지역 책임자들이 위치했다.

척후, 체탐, 간첩, 내통자·반간 등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의 보고 경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가 도절제사나 관찰사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도절제사나 관찰사 등이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다시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먼저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도절제사나 관찰사에게 보고되는 경로를 살펴보고 하겠다.

평안도도절제사 이천이 상언하기를, “... 이제 다시 邊郡에 글을 전하기를, ‘해마다 침범하는 적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함이 가하겠는가. 각자(인원을) 다시 보내서 신속하게 소굴을 정탐하여 馳報하라.’고 하였더니, 이달 초3일에 理山 체탐인 김장 등 다섯 사람이 婆猪江을 몰래 건너서, 兀刺山 북쪽 모퉁이에 있는 吾彌府에 곧장 이르러 보니, 물 양쪽 언덕에 큰 들이 모두 개간되어 농민과 소가 들에 흩어져 있었으며 말은 보이지 않았으며, 인가 18호가 물가 언덕에 있었는데, 산골짜기에 흩어져 있어서 두루 볼 수 없었다 하오나, 이것이 그 대체적인 숫자입니다. ...”고 했다.⁶⁶⁾

기사에서 평안도도절제사 이천은 변경의 여러 고을에 적의 근거지를 정탐하여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체탐 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정리해서 보고했다. 지시가 내려가는 과정을 토대로 역으로 추정해 보면, 우선 체탐부대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령에게 보고한다. 또한 수령은 정보의 내용을 도절제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의 보고 과정은 정보수집자 →

수령 → 도절제사(관찰사)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도절제사나 관찰사에게까지 보고가 끝난 정보가 다시 중앙정부에 보고되는 경로를 살펴보고 하겠다. 이들이 정보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로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병조에서 평안도도절제사의 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婆猪江 兀良哈의 거처를 체탐한 鎭撫가 와서 보고하기를, “이만주의 말이, ‘三寸叔인 都督은 이미 죽고 나의 노비 10명이 일찍이 江界로 도망하여 들어갔는데, 근일에 나의 族類 중에 동북면에 살면서 서울 안에 왕래하는 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 도망한 노비는 이미 예빈시의 사환으로 소속되었다.’고 했는데, 만주가 하는 말에 분개하고 원망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처하던 곳의 人戶는 76호이고, 집과 산업이 부유했습니다. 우리들을 대접할 때에는 군사 2백여 명이 둘러서 있었습니다.”고 했다.⁶⁷⁾

평안도도절제사는 파저강 올랑합의 거처와 상황에 대해 파악한 정보를 병조에 보고했고, 병조는 이를 다시 왕에게 보고했다. 또한 변경에서 적을 방어하거나 호랑이를 잡는 등의 위급한 일에 군사를 동원할 때에는 먼저 군사를 동원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監司를 통하여 병조에 보고하도록 한 태종대의 조치를 통해 변경 지역에서 군사에 관련된 내용을 조정에 보고할 때 기본적으로 병조를 거쳐야 했음을 알 수 있다.⁶⁸⁾ 그리고 세종대의 함길도도절제사가 閔延 지역에 대한 침략 정보와 같은 긴급한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병조를 통해 왕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역시 보고과정에서 병조의 역할을 잘 설명해 준다.⁶⁹⁾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병조가 왕에게 보고하는 중간에는 승정원이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⁷⁰⁾ 이 과정을

67) 『世宗實錄』 권39, 世宗 10년 2월 丁丑.

68) 『太宗實錄』 권34, 太宗 17년 12월 乙酉.

69) 『世宗實錄』 권88, 世宗 22년 2월 辛卯.

66)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己巳.

정리해 보면 도절제사(관찰사)→병조→승정원→왕으로 이어지는 보고경로가 나타난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⁷¹⁾

다음으로 살펴볼 정보보고 과정은 병조를 거치지 않고 승정원에 직접 보고하는 경우이다. 도절제사나 관찰사는 보고 받은 정보의 내용 중에 신속히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병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승정원에 보고했다.

함길도도절제사 김종서가 승정원에 奉書하기를, “9월 15일에 吾弄草에 사는 吾都里 毛多赤이 와서 고하기를, ‘忽刺溫 毛知介·愁乙同巨 등 두 사람이 장사 때문에 愁州에 갔다.’고 하기에, 제가 가서 살펴보고 소식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우리 부락 사람이 전에 京師에 갔다가 들었는데, 범찰 등이 婆猪江에 옮겨 살기를 주청하니, 황제가 奏書를 보고 크게 노하여, 그 전에 開陽 등지에서 노략질한 사적을 상고하여 꾸짖고, 마침내 아뢰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고 했다.⁷²⁾

기사에서 함길도도절제사 김종서는 야인 모다적이 보고한 정보를 승정원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 내용은 범찰 일행이 이주하기 위해 명과 접촉했다

70) 『世宗實錄』 권113, 世宗 28년 7월 丁亥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승정원의 직책은 임금의 말을 관장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함이 없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출납하게 되니, 체통에 관계되므로 이를 위반하고 월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근래에 대소신료들이 왕왕 승전색의 환자를 사적으로 보고 啓達하는 사람이 있으니, … 지금부터 이후로는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계달하는 사람은 승전색에서 계달하지 못하게 하고 승정원이 아니면 또한 명령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것을 영구히 일정한 법식으로 삼으라.」 비록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계달은 승정원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었다.

71) 세종은 의정부서사제를 다시 시행하면서도 군사에 관련된 일은 계속 병조를 통해서 아뢰도록 지시했다(『世宗實錄』 권72, 世宗 18년 4월 戊申). 실제로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보고되는 과정에서 의정부를 거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보고과정에서 의정부는 제외되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72) 『世宗實錄』 권86, 世宗 21년 9월 壬申.

는 사실이었다. 범찰의 세력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조선에게는 중요한 정보였다. 더욱이 범찰 등이 명과 접촉을 시도했고, 황제에게 이주를 위해 주청까지 했다는 사실은 사안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범찰뿐만이 아니라 명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밀을 요하는 정보들은 도절제사나 관찰사의 판단을 통해 병조를 거치지 않고 승정원으로 직접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보보고 과정은 병조와 승정원을 모두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이다. 도절제사나 관찰사는 별도의 지시를 받거나 특별히 비밀로 보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병조나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했다.

함길도감사 김종서가 密封하여 상서하기를, “영북진절제사 이정옥의 事目입니다. 1. 범찰이 처음 왔을 때의 말은 공손하고 순종적이었으나, 말을 타고 성문에 들어오고자 하므로, 같이 온 指揮 태이와 守門人 등이 강하게 제지하고 나서야 말을 내려 입성하였고, … 邊將의 계책을 듣지 않을 수 없사옵고, 저들의 이사는 본래가 정한 기일이 없사오니, 이를 대비할 계책은 일찍 도모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엿드려 성상의 재결을 바라옵니다.”고 했다. … 임금이 감사의 의논을 좇아 함길도에 內傳했다.⁷³⁾

함길도감사 김종서는 왕에게 범찰의 동정에 관련된 정보를 직접 보고하고 있다. 조선측에서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했던 범찰은 당시 명의 작위를 받으면서 조선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황이 되었다.⁷⁴⁾ 그리고 조선에서는 범찰이 황제의 지시로 여진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우려했다.⁷⁵⁾ 당연히 조정에서는 범찰의 동정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변경의 책임자들도 범찰의 동정에 관

73) 『世宗實錄』 권64, 世宗 16년 6월 乙亥.

74) 『世宗實錄』 권61, 世宗 15년 윤8월 壬申.

75) 『世宗實錄』 권63, 世宗 16년 3월 己亥.

런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북진절제사 이정옥이 범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함길도감사였던 김종서에게 보고했다. 김종서는 보고 받은 정보를 밀봉하여 왕에게 직접 보고했다. 또한 세종이 함길도도절제사에게 변경 지역의 대책을 묻거나,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하면서 密啓할 것을 지시하는 모습들이⁷⁶⁾ 나타나는 것은 도절제사나 관찰사가 왕에게 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것이 하나의 경로였음을 확인시켜준다.⁷⁷⁾

이처럼 도절제사나 관찰사가 중심이 되는 정보보고 체제는 세종대에 정립되었다.⁷⁸⁾ 세종대 초반의 기록을 살펴보면 북방의 정보는 대부분 도절제사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방의 정보를 관찰사가 별도로 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듯하다.⁷⁹⁾ 관찰사가 도내의 최고지휘자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북방 정보가 관찰사를 통해 보고되는 모습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지휘계통의 문제와 보고체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북방의 정보보고가 도절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확립하고자 했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續六典』 안에 왜적의 사변은 보통 도관찰사·도절제사·수군도절제사가 각기 스스로 전보하게 되어, 驛路에 폐단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수군도절제사가 전보하게 하고, 만약 行船할 때에는 도절제사에게 전보하게 하고, 왜사와 상선은 도관찰사가 예조에 이문하게 하소서. 지금 평안도와 함길도에서 중국인과 야인들의 내왕과 사변은 관찰사와 도절제사가 두 길로 전보하게 되니 또한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인과 야인들의 내왕과 사변은 도절제사가 전보하게 하고, 진상을 가져 온

야인과 중국인을 돌려보내는 일은 도관찰사가 전보하게 하소서.” 하니, 그 대로 따랐다.⁸⁰⁾

기사에서는 보고의 경로가 여러 개였던 것을, 사안에 따라 보고의 주체를 정해줌으로써 보고체계를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명과 여진에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도절제사에게 전담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관찰사는 진상하러 온 야인이나 중국 사람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민사에 관련된 일을 맡아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평안도와 함길도의 군사와 정보에 관련된 권한을 대부분 도절제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정의 결정으로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보고는 도절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체제가 확립되었다.⁸¹⁾

변경의 책임자들은 수집된 정보를 단순히 보고한 것만이 아니라 분석에 따른 대책까지 건의했다. 이는 건국 초기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태종대까지는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태종 5년에 동북면도순문사가 명사의 女眞招諭 정보를 보고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처음 나타난다.⁸²⁾ 이후 세종대에 도절제사가 원정보와 함께 정보 분석 내용을 보고하는 사례는 세종 8년부터 나타난다.⁸³⁾ 하지만 세종 4년부터 주요 정보가 도절제사를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정보분석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는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세종대에는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보고와 분석 활동이 도절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제가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⁸⁴⁾

76)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8월 癸亥;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9월 壬子.

77) 世宗은 승정원에 “교지에 ‘밀봉하여 아뢰게 하라.’고 한 것은, 有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친히 보겠다는 말이다.”는 언급을 했다. 이는 밀봉하여 보고하는 것이, 곧 왕에게 直啓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世宗實錄』 권101, 世宗 25년 7월 乙亥條)

78) 도관찰사제와 도절제사제가 정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張炳仁, 「朝鮮初期의 觀察使」, 『韓國史論』 4, 1978, 136~138쪽; 吳宗祿, 앞의 논문, 10~16쪽, 75~76쪽 참조.

79) 『世宗實錄』 권25, 世宗 6년 7월 乙亥; 『世宗實錄』 권26, 世宗 6년 11월 甲申.

80) 『世宗實錄』 권44, 世宗 11년 4월 戊戌.

81) 세종 16년에는 관찰사를 중심으로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조정에 보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함길도관찰사가 세종의 최측근이었던 김종서였기 때문에 생긴 예외적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82)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9월 壬戌.

83) 『世宗實錄』 권32, 世宗 8년 6월 丁丑.

이는 조선이 북방 경략을 위해 군사업무를 도절제사가 전담토록 하는 동시에 북방 정보의 보고 및 분석이 도절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조와 승정원은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보고 경로에는 함께 들어가 있었지만 분석 과정에서의 역할은 차이가 있었다. 병조는 변경지역 책임자들이 보고하는 정보에 대해 분석 작업을 실시한 후 보고했다.⁸⁵⁾ 반면 승정원이 보고된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는 일단 왕에게까지 정보가 보고된 다음이었다. 왕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승지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했다.⁸⁶⁾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의정부와 육조 등과 함께 정보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의정부가 보고된 정보에 대해 왕과 함께 분석하여 대책을 내놓는 일은 태종 9년에 북방의 정세가 급박해지고 명사 황엄이 나오는 때부터였다.⁸⁷⁾ 이후로는 왕이 의정부와 함께 보고된 정보의 내용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다. 한편 육조가 정보를 분석하여 대책을 건의하는 모습은 이 보다 더 늦은 태종 16년에 왜구가 전함을 수리하여 중국에 入寇하고자 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나타난다.⁸⁸⁾ 태종 17년이 되어서야 왕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와 육조가 함께 보고된 정

보를 분석하여 대책을 건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⁸⁹⁾ 세종대에는 의정부와 육조가 본격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세종의 집권기에는 왕이 보고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정보의 분석을 지시하거나 보고된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이를 분석하여 대책을 건의하는 모습들도 나타난다.⁹⁰⁾ 사실 승정원과 의정부·육조는 조선 초기의 정보 분석 체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존재들이기는 했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이들의 정보 분석활동이 왕의 의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은 정보 분석체계 안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도절제사나 병조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중앙정부에 보고된 정보를 왕 혼자서 분석하고 조치까지 취하게 되는 경우에 별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수동적인 상태에 있었다.

(3) 기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

정보수집을 위해 중앙관료가 특파된 경우 이들은 파견목적 자체가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입수되거나 보고할 내용이 발생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했다. 이때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특파된 중앙관료는 수집한 정보를 승정원에 직접 보고했다는 점이다.

마변자·변효문 등이 승정원에 奉書하기를, “알타리 등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들이) 도망간 것은 동자음파의 말을 듣고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도절제사가 장차 우리들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하였고, 또 자음파가 스스로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84) 『世宗實錄』 권44, 世宗 11년 4월 戊戌.

85) 『世宗實錄』 권39, 世宗 10년 3월 丁未.

86) 왕이 승지와 함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다음의 기사에서 잘 나타난다. 「처음에 임금이 전지를 손수 초하여 도승지 신인손과 좌부승지 김돈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글 안에 있는 말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정할 곳이 있거든 개정하라.” 하니, 인손 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말뜻이 간절하고 적당하여 진실로 고칠 만한 곳이 없습니다.” …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토벌하고자 한 것이 오래 되었다. 너희들의 논의가 좋으니 이 계책을 연결하여 써서 오늘 즉시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丁丑).

87) 『太宗實錄』 권18, 太宗 9년 10월 庚戌.

88) 『太宗實錄』 권31, 太宗 16년 3월 丙辰.

89) 『太宗實錄』 권33, 太宗 17년 5월 乙卯.

90) 『世宗實錄』 권24, 世宗 6년 4월 辛未; 『世宗實錄』 권48, 世宗 12년 5월 戊午.

조금도 동창에게 망령된 말을 하여 도망가게 한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동자음파의 처자를 놓아 보내고, 또 자음파를 책임지고 保放하였습니다.” 하고, 도절제사 김종서는 또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동자음파는 이미 본국의 벼슬을 받았으니 다른 야인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초무한 사람 때문에 법대로 처치하지 않는다면, 후일에 말을 만들어 일을 일으키는 자를 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동자음파와 그의 처자를 체포하여 서울에서 그 죄를 조사하여 물어서, 律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징계하소서.” 했다.⁹¹⁾

마변자와 변효문은 파견된 이래로 모든 보고를 승정원에 직접 했다.⁹²⁾ 파견목적이 중요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수집과 정세 파악에 있었던 만큼 신속한 보고를 위해서 승정원에 바로 보고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모습은 같은 내용의 정보를 도절제사와는 별도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물론 도절제사와 함께 보고를 하는 사례가⁹³⁾ 있기는 하지만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별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특파된 중앙관료의 보고가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는 별도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중앙정부에서 이들의 정보활동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줬음을 의미한다. 특파된 중앙관료들은 임무 수행 중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없다면, 조정에 복귀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고했다.⁹⁴⁾

포로나 귀화인 등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의 분석 활동은 기본적으로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분석되는 방식과 비슷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특히 이들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보고되는 사례들에서 보고의 주체가 대부분 도절제사라는 점은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다.⁹⁵⁾

91)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4월 辛丑.

92)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4월 戊戌;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6월 丁亥.

93)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5월 丙寅.

94)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4월 丁未; 『世宗實錄』 권59, 世宗 15년 2월 壬子.

하지만 포로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보고의 주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예컨대 태종 17년에 포로로 잡힌 왜인반간 슬라의 사례를 보면,⁹⁶⁾ 보고의 주체가 관찰사로 나타난다. 하지만 세종대에는 포로를 통해 얻은 심문 내용의 보고 주체가 도절제사나 관찰사가 아닌 사례들이 보이기 때문이다.⁹⁷⁾ 포로에 관련된 일은 병조에서 담당했다는 점으로⁹⁸⁾ 미루어 볼 때 정보 보고의 과정은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의 경우와 같았을 것이다.

한편 귀화인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 정보가 예조에 보고된 경우이다. 세종 24년에 귀화자 浪得里卜은 야인 加籠介의 친아들이라며 조선에 와서 조희에까지 참여한 忘家란 자가 사실은 변경을 침략한 沙籠介의 둘째 아들 多籠介라는 것을 예조에 밀고했다.⁹⁹⁾ 사롱개는 조선의 변경을 자주 침략해서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낭득리복이 제공한 정보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이었다.¹⁰⁰⁾ 조선 초기에 귀화인이 예조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는 이 한 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예조를 중심으로 한 정보보고 경로가 있었다는 점도 추측해 볼 수 있다.

95) 『世宗實錄』 권32, 世宗 8년 6월 丁丑;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9월 乙未.

96) 『太宗實錄』 권33, 太宗 17년 윤5월 癸未 「의금부도사 김유공을 강원도로 보내어 왜인 슬라를 잡아 오게 하였다. 처음에 도관찰사가 馳報하기를, “평해군 후리포에서 반간 활동을 하던 왜인 슬라를 잡아 본군에 가두었습니다. 그 왜인이 納辭하기를, ‘대마도에 거주하는 船主 吾羅·三甫羅 등 3인이 왜인 21명을 거느리고 평해 지방에 정박하였다가 저를 두고 가면서 말하기를, 조선의 各浦에서 興利를 엄금하여 생계가 심히 어렵다. 연해를 두루 다니면서 부유하게 사는 人戶의 허실을 살펴 알고 6월 보름 이후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합니다.” 하니, 이때에 이르러 잡아 오게 하였다.」

97) 『世宗實錄』 권61, 世宗 15년 윤8월 丁丑; 『世宗實錄』 권76, 世宗 19년 2월 壬申.

98) 『世宗實錄』 권61, 世宗 15년 윤8월 丁丑.

99) 『世宗實錄』 권95, 世宗 24년 5월 己丑.

100) 『世宗實錄』 권95, 世宗 24년 6월 辛卯.

4. 맺 음 말

조선 초기의 대외정보 수집은 국가 운영상 대단히 중요한 업무였다. 당시 대외정보 수집은 주로 외교 활동을 통한 방법과 군사·비밀 활동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외교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사신과 통사였다. 이들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국의 정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신은 활동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감시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한편 통사는 언어 능력과 넓은 활동영역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에서 사신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대외정보 수집을 위해 통사를 파견하는 사례가 사신을 파견하는 경우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도 정보수집 활동에서 이들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압송관(압해관)도 상대국의 지역을 공식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했다.

군사·비밀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수단 중에서 척후와 체탐 활동은 적의 움직임을 미리 탐지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척후가 비록 체탐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기는 했지만 적의 움직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해, 체탐은 적의 중심 지역까지 침투해서 적정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에게는 간첩을 통한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간첩의 파견은 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중에서 가장 적대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망되었다.

군사·비밀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에서 조선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방법은 내통자와 반간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내통자와 반간은 모두 일정한 대가를 목적으로 상대국에게 정보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통자가 단순히 정보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비해 반간은 상대국에 고용되어 적극적으로 간첩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지역에 관료를 특파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세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중요 정보가 조정에 보고된 이후 추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나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이용되었다. 또한 포로, 귀화인 등을 이용해서도 대외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속해있던 조직의 모습을 파악하고 있는 존재들이었으므로, 정보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중 귀화인은 정치적 문제나 물질적 대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의적으로 정보제공원이 되었던 만큼 가장 가치가 높은 정보원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주요 정보수집 수단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외교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왕에게 직접 보고되었다. 외교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보고되는 과정이 간략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왕은 보고된 정보에 대해 개인의 판단이나 승지들과의 논의만으로는 분석과 대책 마련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정부나 육조와의 분석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보의 보고 과정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 분석과정에 참여하는 일도 왕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왕에게까지 보고되었다.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먼저 정보수집자→수령→도절제사(관찰사)의 보고 과정을 거쳤다. 정보를 보고 받은 도절제사(관찰사)는 이를 다시 조정에 보고했는데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도절제사(관찰사)→병조→승정원→왕으로 이어지는 보고과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중요 정보들이 도절제사나 관찰사

의 판단을 통해 병조를 거치지 않고 승정원으로 직접 보고되는 형태이다. 마지막 유형은 도절제사나 관찰사가 별도의 지시를 받거나 특별히 비밀로 보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 병조나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이다. 군사·비밀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보고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쳤던 만큼 분석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많았다. 정보수집자→수령→도절제사(관찰사)→병조→승정원→왕으로 연결되는 보고 과정에 포함되는 존재들은 승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보 분석 작업을 담당했다.

기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중앙에서 특파된 관료의 경우 수집된 정보를 바로 승정원에 보고했다. 보고 과정이 이처럼 간략했던 것은 이들의 파견목적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수집과 정세의 파악에 있었던 만큼 신속한 보고가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포로와 귀화인(향화인)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보고 경로는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의 보고 경로와 거의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중앙에서 특파된 관료들은 자신들의 간단한 의견이나 분석을 함께 보고했다. 포로나 귀화인 등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의 분석 활동 역시 군사·비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분석되는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투고일 : 2007. 10. 2, 심사완료일 : 2007. 11. 16)

주제어 : 정보, 대외정보, 정보수집, 정보활동, 대외관계

<ABSTRACT>

External Information Gathering and Reporting in The Early *Joseon* Period

Lee, Kyu-chul

Efforts to collect information have been continuously made, from the ancient times up to the present. It has been the interest of a nation that has counted most in its relations with foreign nations. In order to ensure its interest, a nation needs to closely analyze moves of the other side and its intention behind such moves, and based on these analyses, it has to develop appropriate countermeasures. In doing so, accurate and a variety of information plays a critical role. Therefore, gathering external information has been fundamental in managing a nation's affairs and promoting its external relations.

The Early *Joseon* Period was a time of tension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Under such circumstances, gaining access to external information was a top priority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foreign policy-making. Furthermore, the contents of information collected reflect the areas of interest of users. In this respect, an examination of how information was gathered at the time and how such information got through to policymakers will present a more detailed picture of the external relations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Information, External Information, Information Gathering,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External Relations